

濟州島民具(Ⅱ)

— 제주도 의 떼배 와 그 어로행위 들 —

高 光 敏*

— 目 次 —

- | |
|-------------------|
| I. 머릿말 |
| II. 떼배 |
| III. 떼배를 이용한 어로행위 |
| IV. 마무리 |

I. 머릿말

통나무 여럿을 연결하여 만든 배가 제주도에서는 ‘떼배’·‘태위’·‘태’·‘터우’ 등으로 불리운다. 배의 역사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배는 B.C. 5-6,000년 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어진 여건에 알맞게 떼배를 만들어 사용하여 왔을 것이다. 타 민족들의 어느 지역에서는 대나무나 또는 파피루스(紙草)라고 하는 나무로 떼배를 만들어 써오기도 했는가 하면,¹⁾ 또 그 쓰임도 지역마다 달랐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 본토의 경우, 남해안 일부와 거문도·추자도·울릉도 등의 도서 지방에서는 이 떼배를 이용하여 연안어로 및 해초채취 등에 많이 이용하여 왔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²⁾ 오늘날에 와서는 거문도 등지에서 주로 해초

* 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 助教

1) 上野喜一郎(1943): 「船の歴史」, 羽田書店 刊.

2) 大谷實·齊藤陽三(1936): “造船學的にみた朝鮮型漁船”, 『漁船』 Vol.1, p.24, 日本漁船協會.

채취용으로만 떼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³⁾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떼배를 이용하여 연안어로는 물론, 해초 채취용으로 쓰이고 있어 제주도의 떼배는 제주도의 어로 생활 중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하겠다. 그러나 제주도 떼배에 대한 관심은 정공훈 교수의 떼배에 대한 항해학적 연구와⁴⁾ 일본인 학자 柴田惠司·高山久明의 제주도 떼배와 대마도 것과의 항해학적인 비교 연구가⁵⁾ 있었을 뿐, 제주도 떼배에 대한 어로 민속적 보고나 연구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떼배의 造船 과정과 그 구조, 그리고 떼배를 이용하여 행해졌던 모든 어로행위들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 제주도 어로 민속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떼 배

1. 떼배 만들기와 그 구조

오늘날 떼배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여 서술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 어촌에서는 음력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떼배를 이용한 어로기간, 즉 겨울 동안에 대개 떼배를 분해하여 보관해뒀던 것을 이듬해 어로 시기가 다가올 즈음에 재조립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겨울 동안에는 떼배를 분해하여 보관함으로써 약 7~8개월 동안이나 물우려졌던 멧목이 건조되고 그 무게가 가벼워져 자연 그 浮力이 좋아 훨씬 항해속도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서술하는 떼배 만들기 과정은 1984.5.1. 신촌리(朝天面新村里) 포구에서 康賀林(남·89)씨 소유의 배를 재조립하는 과정을 목격, 이를 서술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은 여러 촌로들의 제보에 의하여 보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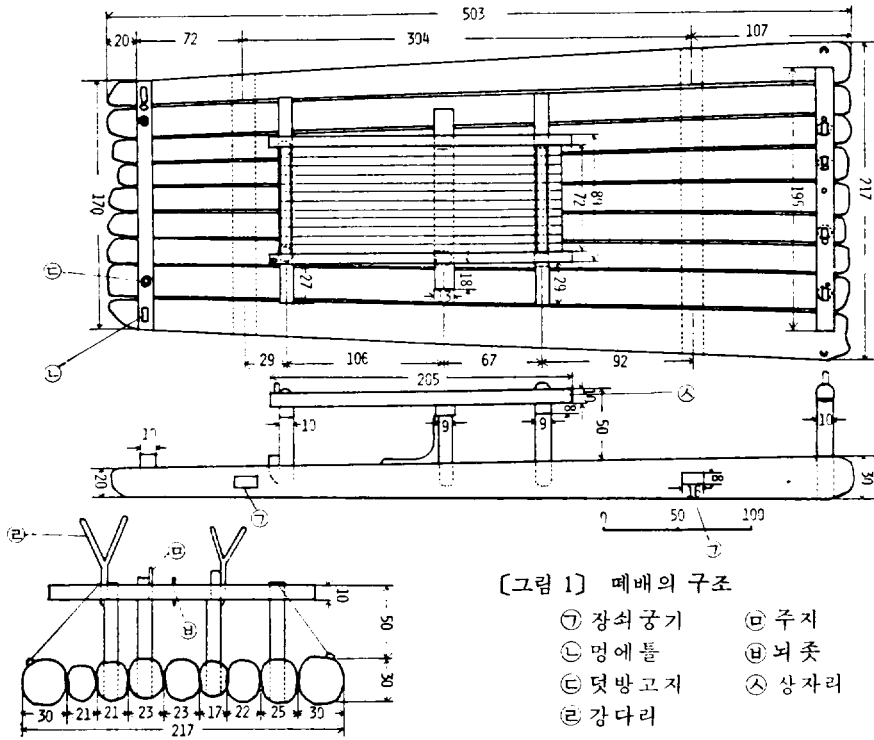
3) 김광언(1967): 「韓國民俗綜合調査告書(全南篇)」, 文化財管理局 刊

4) 鄭公析(1983): “濟州島 周邊의 筏船調査”, 「제주대 논문집」 15집, pp.89~93.

5) 柴田惠司·高山久明(1978): “對馬佐護湊と見聞した藻刈舟について”, 「海事史研究」 第31號 pp.87~97.

규모 정공혼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구의 조건과 그리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규격을 정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제주도 폐배의 규모는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⁶⁾ 그래서 제주도 폐배의 규모는 선미폭이 170 ~ 240 cm, 선수폭이 140 ~ 180 cm이고, 길이 400 ~ 550 cm이고, 폐배에 사용되는 재목의 수는 7 ~ 11 본으로 짜여지며, 통나무의 직경은 선미측이 20 ~ 40 cm, 선수측 15 ~ 20 cm로 그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인 학자 柴田惠司·高山久明 두 사람이 대마도의 폐배와 제주도의 폐배를 조사 비교한 글⁷⁾에서 신촌리(朝天面 新村里) 김봉인씨 소유의 폐배 한 척에 대한 구조 약도를 상세히 그린 바 있다. 이를 여기에 다시 소개하면서 폐배의 부분명칭과 기능,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6) 鄭公析(1983): p.91.
7) 柴田惠司·高山久明(1978): p.93.

㉞ 재료 구입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나무들 중, 떼배의 재료로 쓰기에 가능한 나무는 한라산 7~800 고지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밖에 없다. 그 이외의 나무로 떼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부력이 오랫동안 좋을 수가 없어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7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어촌들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음력 3월 중 어느 寅日을 택하여 한라산에 올라 구상나무를 베어다가 떼배를 만들었다. 나무를 벨 때 주의할 점은 나무가지 하나라도 죽어 말라버린 것을 베어 와서는 곧 삭아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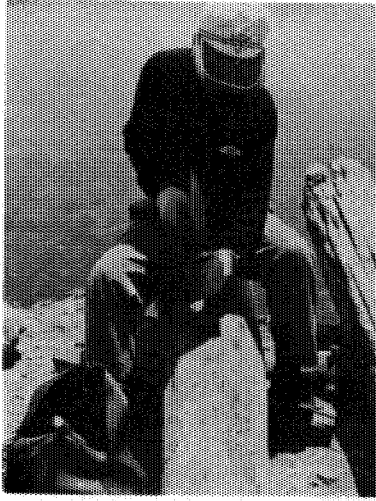
구상나무를 베고 나서 일정한 곳까지 어깻짐으로 운반, 이를 다시 바닷길로 마을 포구까지 옮겨서 6개월 이상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나무를 건조시켜야 한다. 신촌리(朝天面 新村里)의 경우는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베고 나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약 10여km쯤 떨어진 도그내(川)까지 어깨짐으로 운반, 그것을 다시 바닷길로 이 마을 포구까지 운반해다가 떼배를 만들었다고 하고, 월정리(舊左邑 月汀里)의 경우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 마을의 위치와는 정반대쪽인 하례리(南元邑 下禮里)경 공천포구까지 구상나무를 옮겨다가 이를 다시 바닷길로 이 마을까지 운반하는 '사례가 혼했었다고 한다.'⁸⁾ 이는 그당시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는 육상교통수단보다 해상교통이 오히려 손쉬웠음을 반영하는 사례라 하겠다.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한라산에 자라는 구상나무로 떼배를 만들어 왔지만 구상나무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점점 희귀해 갈 뿐 아니라 나무의 굵기가 아무래도 삼나무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산 삼나무를 사다가 여기에서 떼배를 만드는 게 일반화되었었다.

㉟ 장쇠 끼우기

나무를 [그림 1]에서처럼 가지런히 놓았을 경우, 그 횡으로 배의 앞뒤 양쪽에다 [사진 1]과 같이 끌과 망치로 구멍을 판다. 이 구멍을 '장쇠궁기'라고 한다. 나중에 그 구멍에 맞게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정사각형의 나무못을 끼우게 되는데, 이를 '장쇠' [사진 2]라고 한다. 장쇠는 자연 배의 앞부분인 이물의

8) 朝天面 新村里 康賀林(남·89)씨와 舊左邑 月汀里 윤공오(남·97)씨 談에 의함.



← [사진 1] 장쇠구멍파기
↑ [사진 2] 장쇠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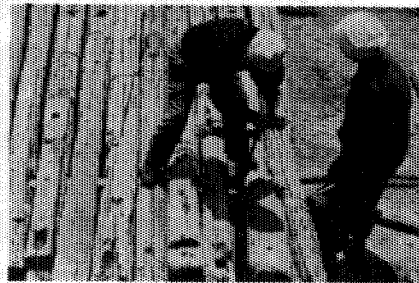
것이 고물의 것에 비하여 작기 마련인데, 전자를 '이물장쇠', 후자를 '고물장쇠' 라고 한다.

장쇠는 이물장쇠부터 끼워나가기 시작한다. 장쇠를 끼워나갈 때에 쇠망치로 치면 장쇠가 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진 3]처럼 나무망치로 쳐주는 게 좋다. 장쇠를 박는 동안에 장쇠가 턱에 걸려 잘 끼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지렛대로 뗏목을 조금씩 움직여 주며 [사진 4]처럼 뗏목을 팽팽하게 끼워준다.

이물장쇠가 완전히 끼워졌다고 생각되면, 배의 앞부분을 [사진 5]처럼 단단한 밧줄 따위로 바싹 틀어 조인 후, 이물장쇠를 끼울 때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고물장쇠를 끼운다.



[사진 3] 장쇠 끼우기



[사진 4] 지렛대로 조이기



↑ [사진 5] 밧줄로 뗏목 조이기
→ [사진 6] 뗏방고지 끼우기



㊤ 멩에 세움

‘멩에’는 멩배의 맨 앞뒤에 세워져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船頭에 세우는 것을 ‘이물멩에’ (이를 ‘뗏방’이라고도 한다), 船尾에 세우는 것을 ‘고물멩에’라고 한다.

이물멩에는 구조 약도상 ㉑의 위치에다 직사각형의 나무뿔으로 관통시켜 고정시키는데, 이를 ‘멩에틀’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안쪽(구조 약도상 ㉒)으로는 [사진 6]과 같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둥근 나무뿔을 돌출되게 박는다. 이는 어로 작업 중 일정한 위치에다 배를 고정시켜 놓기 위하여 뗏을 드리우고 그 줄을 여기에다 묶어두기 위한 못과 같은 것으로, 이를 ‘뗏방고지’ (또는 ‘뗏장’)라고 한다.

고물멩에는 구조 약도상 맨 아랫그림인데, 네 개의 기둥(뗏멩에틀)으로 받쳐 세워놓고 또 양쪽으로는 철사줄이나 단단한 쉼줄로 묶어 움직여지지 않게 했다. 받쳐 세워진 그 나무 위에는 구조 약도상 ㉓의 ‘강다리(또는 ‘가랑다리’)와 ㉔의 ‘주지’, 그리고 ㉕의 ‘뇌쫓’이 부착된다. 강다리에는 배의 여러가지 도구들을 걸쳐 둘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 중에 옷이나 점심밥 등도 매달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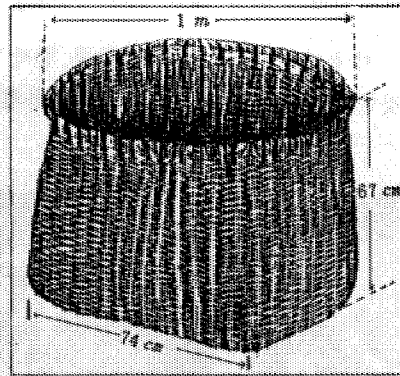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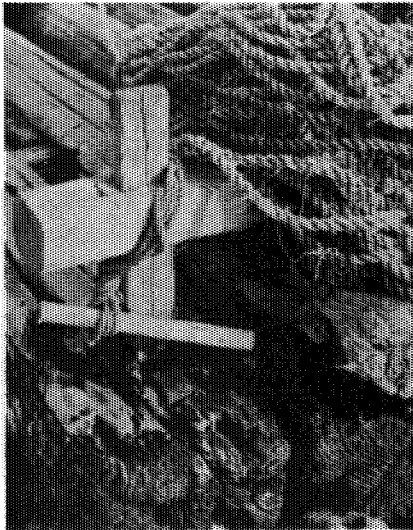
관한다. ㉔의 주지는 이물멍에의 덧방고지처럼 닻을 매어두기 위한 못이고, ㉕의 뇌춧은 노를 그 위에 걸쳐 얹어 저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고물멍에의 부품들 중 여타의 것들은 어떤 나무를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뇌춧만은 가시나무나 구지뿔나무를 써야 질겨서 좋다.

㉖ 팽게틀목

고물멍에와 터우 뗏목을 단단한 줄로 연결해서 [사진 7]처럼 나무조각으로 그 줄을 틀어 팽팽히 조여 준다. 그래야 매배가 혹 어떤 암초에 부딪치더라도 안전하다.

㉗ 상자리 세움

참나무와 가시나무로 만든 여섯 개의 발을 뗏목 표면위에 세워놓고 그 위에 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자리를 깔아 놓은 것인데, 이를 '상자리'라고 한다. 이 위에 서서 노를 젓기도 하고, 어로작업 도중에 앉아 쉬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 무거운 짐을 실어서 매배의 표면이 수물될 경우에는 船上의 船으로 쓰일 수도 있다. 또 이것은 해초작업 때에나 어장에서 잡은 멸치를 '고리' ('벨고리'라고도 함. [그림 2] 참조)라고 하는 큰 대바구니에 담아 운반할 때에는 이를 매어내 버릴 수도 있다.



← [사진 7] 팽게틀목

↑ [그림 2] 고리, 제주대 민속박물관
유물번호 (이하 濟大博)

117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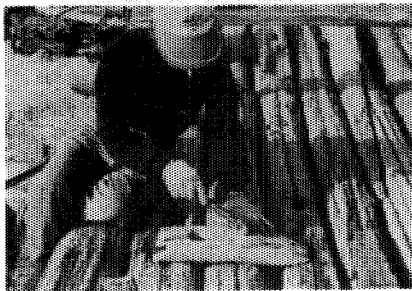
㉔ 돛대궁기(구멍)

메베는 그 구조상 돛이 필요없지만, 자리를 그물로 뜨기 위해서는 그물을 해저까지 드리웠다가 그것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도르레(용도)를 높이 달아 매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의 돛대는 용도를 높이 달아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항시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작업할 때만 임시로 세워 놓는 장치가 필요하다. 배의 표면에다 돛대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판 나무 조각을[사진 8]처럼 덧붙여 놓고 다시 상자리에다 적당한 나무 토막(군벳)을 붙여 놓아 바로 그 사이에 돛대를 끼운 후,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㉕ 새역 박음

메베는 낚싯거루와는 달리 대개 겨울 동안에는 이를 분해한 뗏목을 보관해 뒀다가 어로 시기가 다가오면 재조립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장쇠구멍은 해가 거듭될수록 넓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장쇠와 장쇠구멍의 사이가 맞지 않게 되면 노를 저을 때 배 전체가 움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진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또 메베가 쉬 낡아질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사진 9]처럼 나무 조각을 벌어진 틈 사이에다 박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새역 박음’이라 한다.

지금까지의 것들이 메베에 항시 고정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것들이라면, 그 외에도 메베의 몸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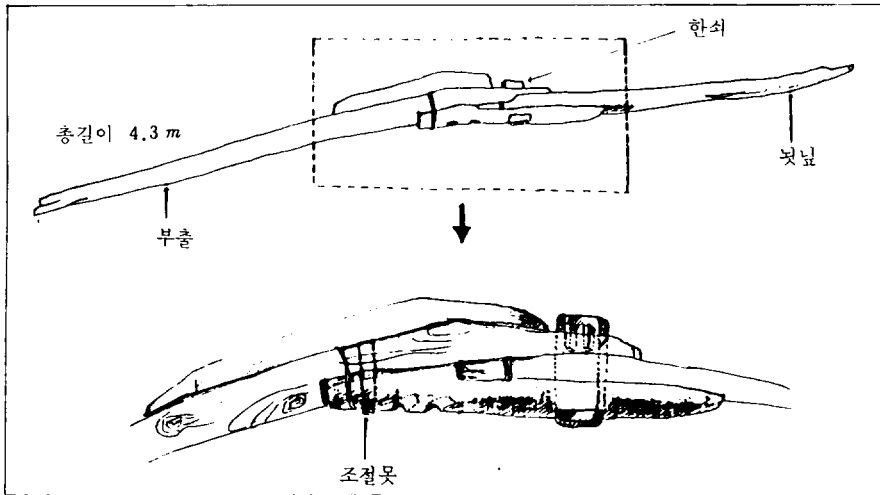
[사진 8] 돛대궁기



[사진 9] 새역 박음

o 노

물을 헤쳐 떼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인 노를 두고 ‘터윳뇌’·‘테윳뇌’, 또는 ‘돌름뇌’라고 한다. 떼배는 그 모양이 여타의 배들에 비하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노 또한 그에 알맞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림 3] 노 (돌름뇌), 濟大博 1572-42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을 ‘넋뇌’, 손잡이 부분을 ‘부출’ (또는 ‘넋조력’)이라 한다. 전자의 것은 어느 나무보다 침수성이 강하면서 단단한 가시나무로만 들어지고, 후자의 것은 소나무나 삼나무로 만들어진다. 이 둘은 ‘한쇠’ (또는 ‘장쇠’)라고 하는 가시나무로 만든 나무못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노를 저을 때에 이물명예에 고정되어 있는 뇌쪽에 끼우게 된 구멍이 두 군데 뚫려 있다.

이상은 낚싯거룻배의 노들과 거의 비슷한 점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떼배의 노는 여타의 노들에 비하여 구조상, 또는 형태상으로 특이한 점 몇 가지가 있다.

구조상 특이한 점은, 여타의 노들이 대개 노를 잡아 어깨 밑으로 젓기 때문에 노손(상채)이 부착되어 있지만, 떼배의 노는 대개 어깨위로 손을 올려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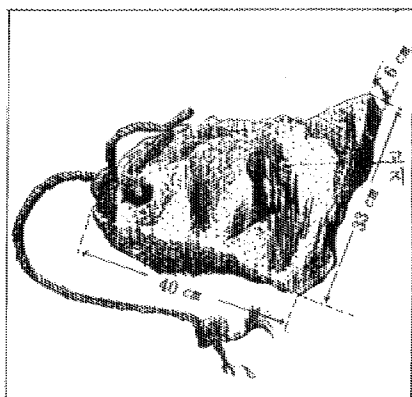
로 휘둘리거나 노를 젓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노손이 없다는 점(그래서 '돌롬보'라고 한다). 그리고 여타의 배들에는 대개 키(치)가 있지만, 폐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노 자체에서 조절하기 위한 '조절못'이 있다는 점이다. 조절못이 있어서 노를 젓는 도중에라도 배가 가고 싶은 방향의 반대 쪽에다 손바닥으로 부출을 세게 쳐 주면 조절못이 흔들리면서 자연 뱃녘이 틀어지기 때문에 뱃녘만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

또 형태상으로 여타의 노들에 비하여 다른 점은, 여타의 노들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뱃녘쪽으로 갈수록 더 구부정하게 생겼다는 점, 그리고 다른 노들에 비하여 노의 길이는 짧지만 뱃녘의 넓이가 넓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 촌로들의 말에 의하면, 폐배의 노는 어떤 여타의 배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노는 폐배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들 한다.

○ 닻

배를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밧줄에 매어 물에 던져서 배를 고정시키는 도구인 닻은, 대개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왔는데, 전자를 '돌닻', 후자를 '낭닻'이라 한다.



↑ [그림 4] 돌닻, 濟大博 1526-42

→ [사진 10] 닻줄 꼬기(이즈미세이이찌 「濟州島」에서轉載)



돌돛 약 25kg 정도의 돌덩이에다 닻줄만 끼워 연결하게 된 한 개의 구멍만 뚫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닻줄을 끼우게 된 구멍 말고도 그 반대쪽에다 크게 구멍을 뚫고서 바닷물에 강한 소리나무로 만든 막대를 그 구멍에 맞게 박아 놓은 게 있다. 그 막대를 ‘고지’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해저조건에서건 잘 걸려서 닻돌을 한번 드리워 놓으면 함부로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닻은 朝天面 일대에서 흔히 보인다.

남돛 나무로 만든 닻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닻장에는 돌을 박아 묶어 물에 잘 가라앉도록 했고, 닻가지는 여러 개의 발이 달려 있다.

닻줄 대개 최줄로 어린애 팔뚝만큼씩 [사진 10]처럼 꼬아서 만들고 닻에다 연결시켰다.

○ 사울대

대개 삼나무로 해서 4~5m쯤 되게 만든다. 물이 얇아서 노를 저을 수 없는 곳에서는 이것으로 배의 양쪽을 번갈아 가며 바다 밑에다 대고 밀리면서 항진시키기도 하고, 또 포구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배가 포구 돌담 등에 떠받칠 우려가 있을 때마다 이것으로 돌담을 받쳐 주면서 위험에서 벗어난다.

2. 떼배의 신앙

떼배의 신앙은 풍선이나 낚시저룻배들에 비하여 좀 약한 편이다. 그 이유는 떼배가 주로 연안어업에서만 쓰이고 있어 위험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풍선에서는 한달에 두번씩이나 정기적(음 14,30)으로 배에 고사를 올리고, 또 배의 한모퉁이에다 ‘船王’이라고 하는 신체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떼배의 신앙은 배에다 늘 선왕을 모시는 일은 없고 배를 新造했을 때와 백중일 그리고 일년 중 배가 처음으로 출어하는 날 돼지머리를 올려 제를 간단히 지내는 것으로 끝난다.

Ⅲ. 때배를 이용한 어로행위

제주도에서 때배를 이용한 어로행위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이는 고기잡이 어로행위와 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한 해초채취어로행위이다. 전자의 경우는 멸치잡이·자리잡이·갈치잡이·오징어잡이가 주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듬북’이라고 하는 해초를 채취하는 일이다. 이를 때배의 쓰임과 아울러 그 어로행위 하나하나를 알아 보기로 한다.

1. 연안어로

1) 멸치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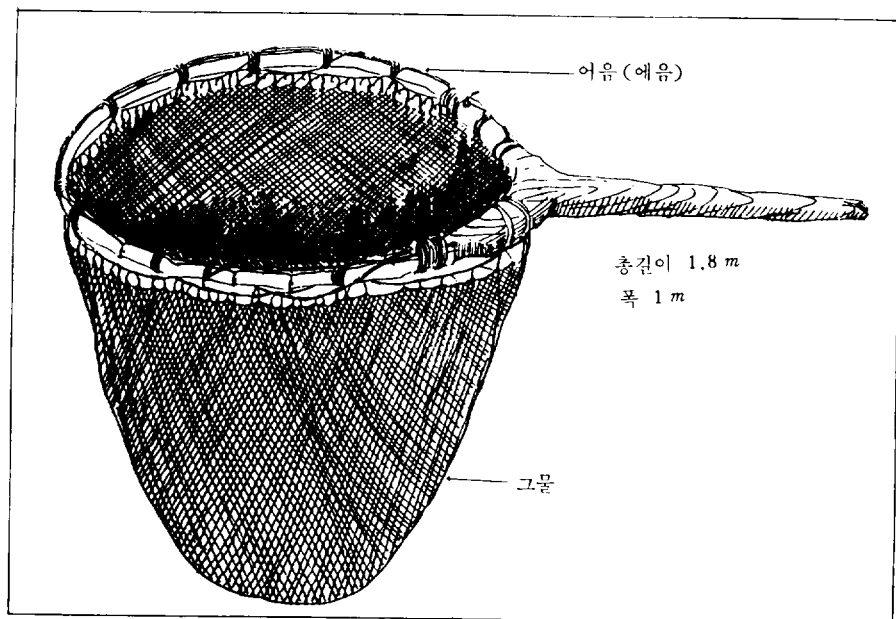
㉞ 갯담어로

제주도에서 가장 원초적인 멸치잡이 형태는 ‘갯담’ 또는 ‘원담’이라고 하는 해변에 마련된 담장 안에 든 멸치 떼들을 ‘족바지’라고 하는 타원형의 그물로 떠 잡는 형태의 어로 행위를 말한다.

갯담은 대개 해변이 육지쪽으로 조금 깊숙히 들어간 곳에다 멸치를 가둬 잡기 위하여 돌담으로 막아 둔 담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담 안에는 밀물에 따라 그 안으로 들어 온 멸치 떼들이 썰물이 되었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정도의 높이로 덮어두는 게 일반적이다. 그 높이는 대개 1.5 m 내외이고, 그 담장의 폭은 1 m, 길이는 해안의 형성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일정치 않다.

족바지는 Y字 모양의 소나무 가지에다 휘어지는 성질이 강한 대나무나 참나무 같은 것을 다시 덧붙여 원형의 테두리(이를 ‘어음’, 또는 ‘에음’이라고 함)를 만들고 거기에다 그물을 달아 맨 1인용 최소형의 그물이다(〔그림 5〕참조).

이와 같은 갯담어로는 멸치 떼들이 제주 근해에 몰려드는 음력 5월에서부터 7월까지 이어진다. 이때가 되면 멸치 떼들은 조수의 밀물을 따라 해변 가까이까지 몰려왔다가 썰물이 되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은 자연 이 갯담 안에 가둬지게 마련이다. 이 때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계(契)를 조직하여 공



[그림 5] 죽바지, 濟大博 1190-42

동으로 갯담 안에 든 멸치를 잡고 또 공동으로 분배 받는다.

갯담접 이 갯담어로에도 하나의 조직이 있다. 이를 ‘갯담접’(契)이라고 한다. 대개 한 마을 안에서도 동네 별로 공동으로 갯담접의 성원이 되는 게 일반인데, 이들은 갯담을 쌓는 데 공동으로 참여한 성원들이며, 또 1년에 한번 갯담 보수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조직체 안에는 소임 두 사람이 있다. 소임들은 번갈아가며 이 갯담 안에 멸치 떼가 물려왔는지를 늘 확인, 멸치 떼들이 많이 물려와 계원들을 동원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즉시 동원해야 한다. 이들은 이 조직체 성원들 중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치를 잡은 후 분배받을 때에는 일반계원들에 비하여 1배 더 분배받는다.

이와 같은 갯담어로는 이후에 서술하는 ‘장막후림’이라는 보다 진보된 멸치잡이 형태와 병존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 전등불을 이용한 멸치잡이 배(불배)들이 다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여 년전부터 사라진 어로행위라 하겠다.

㉔ 방진그물어로

갯담어로 형태의 멸치잡이가 단지 조수의 힘만을 이용, 멸치 떼들을 담장안에 가둬 놓고 잡는 어로형태라면, 방진그물은 거대한 그물을 이용, 인공적으로 멸치 떼들을 가둬 놓고 잡는 것이며 보다 진보된 어로형태라고 하겠다. 이를 두고 ‘방진그물’ 또는 ‘장막후림’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의 어로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비된 공동체 조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제주도에서 해안의 모래밭이 좋은 어촌들에서는 자연 이와 같은 형태의 멸치잡이 어로 행위가 성행되어 왔다. 이는 모래밭이 연안에 잘 형성되어 있어야 만이 먼 바다에서부터 그물 안에 멸치 떼들을 가두고 해안 가까이로 끌어당겨도 그물이 상하는 일도 없어 어로작업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조직 방진그물을 이용하여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대개 30여명이 한 組를 이루고 있어야 어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하나의 조직체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한 마을 안에서 그 조직체의 수는 그 마을의 멸치어장 조건에 따라 비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장 형성 조건이 훌륭한 마을 안에서는 대개 동네별로 조직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한 마을의 경우를 선정하여 그 마을 안에서의 어장조직을 살펴 보기로 한다.

지난날 멸치잡이가 마을 사람들의 큰 생업수단의 하나였던 월정리(舊左邑 月汀里)의 경우, 그 마을 안에는 여섯개의 조직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공동조직체를 ‘그물점’ (契)이라 한다.⁹⁾

이 마을 사람들은 여섯개의 그물점들 중 어느 한 조직체에든 참여하여 하나의 계원이 되기 마련이다. 이들 조직의 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가호 단위로 한 주식회사에 가입하는 것처럼 1개의 주식(이를 ‘쩍’이라 함)만을 사서 가입할 수 있는데, 한 가호당 한 주만이 허용된다. 그러니, 마을사람 모두가 어떤 한 그물점이든 한 주만 사면 자연 계원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멸치잡이에 참여하고 또 그 이익금도 거의 마을 전체가 공평하게 분배받게 되어 있다.

한 그물점 안에는 여러 계원들이 모여 선출한 계장(망장) 1인, 공원 1인, 소

9) 그들 그물점(契)의 이름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큰그물점’·‘신세그물점’·‘배롱개그물점’·‘송포그물점’·‘섯동네그물점’·‘구세그물점’.

임 2인이 있다. 계장은 그물점의 우두머리로 그물점의 대표이고, 공원은 계장을 보좌하며, 소임은 멸치잡이 때는 물론, 계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작업할 일이 있을 때에는 공원의 지시에 따라 동원 책임을 떠맡은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소임은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계원에 비하여 1 배 더 이익금을 받게 된다.

이들 여섯개의 그물점은 별개의 단체이면서도 또한 긴밀한 관계를 서로 유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마을 연안에 형성된 어장이 다섯 군데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장마다 위치와 어획고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 어장의 명칭과 위치를 간단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어 장	명 칭	위 치
제 1 어장	선 진 망	‘방엿여’ 동쪽 모래밭
제 2 어장	장 엿 통 망	마을에서 정면에 위치한 모래밭
제 3 어장	후 진 망	마을 동쪽 경계상에 위치한 속칭 ‘지픈 개’ (浦) 모래밭
제 4 어장	오 저 망	‘오저여’ 를 중심으로 한 모래밭
제 5 어장	송 포 망	마을 서쪽 경계상에 위치한 모래밭
제 6 어장	비상조치망	(일정한 위치가 없고 5 개 망에서 멸치떼를 가렸는데도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출어하는 網)

이들 여러 그물점에서 무질서하게 한꺼번에 멸치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면 멸치 떼들이 다른 해역으로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혼잡을 가져와 능률적으로 작업이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輪番을 정해야 한다.

여섯개의 그물점 대표들인 계장들은 정기적으로 음력 4월 1일에 향사에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출어 순번을 정하게 되는데, 그 순번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날씨 관계로 어로작업을 못하는 날일지라도 매일마다 교체된다. 이 마을 어장에 멸치 떼들이 모여들어서 그날 선진망으로 제일 먼저 출어했던 그물점은 내일은 맨 나중에 출어해야 하는 비상조치망이 된다. 때문에 멸치 떼가 많이 모여들지 않았을 경우, 나머지 그물점에서는 수확이 없는 날도 있게 된

다. 바로 시계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그 어장 순서가 바뀌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장을 벗어나서 다른 어장으로 가서 그물을 치거나, 순서를 어겨 그물을 쳐서는 위법행위가 되고 만다. 선진망에서 멸치 떼들을 가둔 뒤에 거기에서 빠져나온 멸치 떼들은 제 2 어장인 ‘장에통網’에서 그물을 쳐 가둘 수는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月汀里의 그물잡 공동조직은 그 마을의 어장 형성 조건과 마을 사람들이 그 형성조건에 대처한 가장 합리적인 자연 발생적 어망조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등불을 이용한 멸치잡이 어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여 년전부터 이와 같은 어로행위는 자취를 감췄는데, 간접조사를 통하여 그 멸치잡이의 과정을 알아 보기로 한다.

그물막 해질 무렵이면 모든 그물잡(契)의 계원들은 모두 해변으로 내려가서 각기 그들의 그물잡마다 갖고 있는 그물막으로 모여든다. 그물막은 그물잡마다 갖고 있고 하나의 창고와 같은 것으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멸치잡이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계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작업하는 곳이기도 하며, 출어하기 바로 직전에는 여럿이 모여 대기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장확인 멸치 떼들이 해당된 어장에 몰려왔을 때 방진망을 쳐서 가둬두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두 척의 낚시거룻배가 맨 먼저 出船하는데, 이 배를 ‘당선’ 또는 ‘멜당선’이라 한다. 이 두 척의 배에는 각기 3~4명이 승선한다. 이들은 멸치어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야 멸치 떼들이 몰려 온 양과 또는 그날에 알맞는 간만의 차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물을 드리울 위치와 방향 등, 작업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계원들은 절대적으로 당선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당선에서 멸치 떼가 몰려온 것이 확인되면 당선 한 척은 재빨리 물으로 와서 연락을 취하고, 한 척은 그 위치에 남아 멸치 떼의 행방을 계속 주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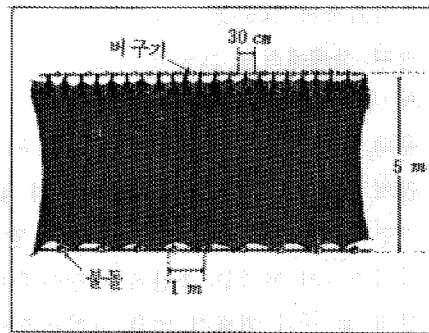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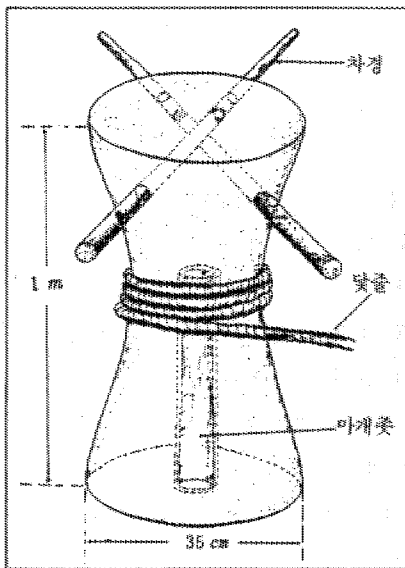
防陣網 방진망이란 글자 그대로 멸치 떼들을 그물로 포위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멸치 떼들이 어장에 들어왔다는 연락이 한 당선에 의하여 그물막에서 대기하고 있는 계원들에게 전해지면, 그물잡의 모든 계원들은 각기 그들

이 할 몫에 맞게 각자 여러 배에 나눠 타고 멸치 떼들이 몰려 온 어장으로 나간다. 여기에서 10여척의 배들이 동시에 출어하게 되는데, 각기 그 임무는 배들별로 구분지을 수 있다.

그 배들의 구분은 2척의 당선과 망선, 그리고 5~6척의 닻배로 구분된다.

당선 당선 두 척에는 서로 兩陣으로 나눠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한 배에 3명 째 늘 승선해 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어장에 멸치 떼들이 몰려 왔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물에서 대기하고 있는 계원들에게 출동지시를 내릴 뿐만 아니라, 멸치 떼들을 포위하기 위하여 양진영에서 작업을 총지휘한다. 그러니 멸치잡이 어로에 남다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늘 승선해 있게 된다.

망선 그 다음 두 척의 망선은 그물을 싣고 나가는 낚싯거룻배이면서 오늘날 현대식 배들에서 닻줄을 감아올릴 때 쓰는 윈치(winch)와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서 '마개' [그림 6]를 장치한 배이기도 하다. 이 배도 역시 그물을 드리우기 위해서는 양진영으로 나뉘지게 되는데, 1대당 12발 길이의 그물을 6대씩이 나눠 싣고 나간다. 그러니 防陣網을 치기 위한 그물은 모두 12대가 되는 것으로 그 길이는 약 144 발이나 된다. 그 그물은 [그림 7]과 같이 생겼는



← [그림 6] 마개, 구좌읍 일정의 한 세종(남·47)씨 제보

↑ [그림 7] 멸그물, 동일인 제보

데, 그물 위쪽으로는 삼나무나 구상나무로 만든 부표인 ‘버구기’가 30 m 간격으로 일정하게 달아매어 있고, 그물 아래쪽으로는 그물이 물속으로 쉽게 가라앉게 하기 위하여 돌(불돌)을 1 m 내외 간격으로 달아매다.

마개 마개는 먼 바다에 그물을 드리워 놓고 연안 가까이 목적지까지 끌어 당길 때 쓰는 윈치(winch)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다. 1 m 씩 되는 높이의 통나무를 실패처럼 허리부분을 양 마구리보다 조금 들어가게 파 놓고 또 양 마구리를 둥글게 관통하여 배의 뒷부분에 설치한 기둥(이를 ‘마개줄’이라 함)에 얹혀 놓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마개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길다란 막대(이를 ‘차경’이라 함)를 끼워 네 사람이서 그것을 돌려가면 자연 그물에 묶인 닻줄이 마개에 휘감김에 따라 저절로 그물이 쉽게 당겨지게 된다. 이 마개를 감는 일은 가장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청년들이 맡아서 한다.

닻배 당선이나 망선은 붕선을 이용하는 게 일반이지만, 닻배는 오히려 메배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닻배들의 기능에서 쉽게 짐작된다. 닻배는 모두 5 척의 메배가 필요하다. 방진망 설치 작업이 양진으로 나눠져서 멀치 메들을 포위해다가 일정한 위치에서 가둬두기 때문에 한쪽에 두 척씩 해서 모두 네 척의 배가 소요된다. 나머지 한 척은 먼 바다로부터 일정한 목적지까지 그물을 당겨오는 동안이나, 아니면 목적지까지 그물을 당겨와서 방진된 상태에서서나 그물의 중심부분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부표 기능을 줄곧 하는 배이다. 그래야 그물을 당기는 도중이라도 급한 조류나 바람으로 인하여, 아니면 그물이 암초에 걸릴 우려가 있더라도 휘감기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네 척의 닻배들은 거대한 닻과 최으로 어린애 팔뚝만큼씩 굵게 끈 닻줄을 싣고 나가 양진으로 그물을 흘려 칠 때나 또는 일정한 목적지까지 당기는 동안에는 당선에서 마개를 이용, 마음 놓고 그물만 당길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닻을 여기저기로 옮겨 놓으며 늘 망선을 고정시켜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멀치 메들을 포위해다 일정한 위치에 방진한 상태에서는 그물이 흔들리거나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띄엄띄엄 부표의 기능도 겸하게 된다. 이들 닻배에는 각기 2명 내외의 채원들이 승선해 있다.

그물 드리우고 당기기 각 그물접마다 해당된 어로구역(어장)안에 들어온 멀치 메를 포위하고 다시 목적지까지 당겨오기 위하여 그물을 드리울 때에는 무엇

보다도 干滿의 차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밀물 따라 어장 안으로 들어 온 멸치 떼들은 다시 썰물 따라 깊은 바다 속으로 도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빠져 나가려는 순간을 잘 잡아서 바로 그 직전에 그물을 드리워야 한다. 그래야 어장 안으로 몰려 온 멸치 떼들을 최대한으로 포위할 수 있게 된다. 그물을 드리우는 지점이 가장 먼 경우에는 月汀里의 경우 마을 해변에서 약 500 m쯤 떨어질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물을 목적지까지 끌어 당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비되는 경우도 있다.

양진영에서는 똑 같은 방법으로 해당 진영의 당선의 명령에 따라 한쪽에 여섯대의 그물을 드리우고 또 당겨나간다. 그물 12대는 말꼬리 털로 끈 줄(이를 ‘총줄’이라 함)로 서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 이를 ‘연폭’이라 한다. 이 줄이 끊길 경우에는 멸치 떼들은 모두 이리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강한 ‘총줄’로 단단히 묶어 줘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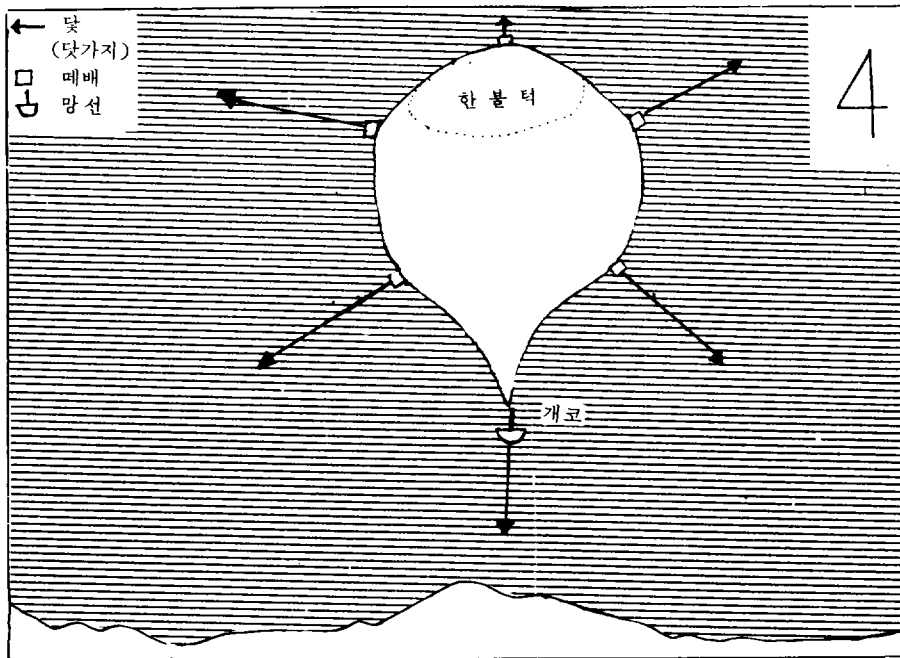
당선에서 그물을 흘리워가며 반쯤, 그러니 세 개의 망을 드리웠을 즈음에는 양진영마다 두 척씩 나뉜 낚배 중 한 척은 그물 중간쯤을 잡아줘야 한다. 그물이 휘말리거나 아니면 물속 암초에 얽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은 망선 조금 앞으로 향진해 나가다가 그물이 모두 물속으로 드리워지고 나서 마개를 이용, 그물을 당길 때를 대비하여 닳을 고정시켜 줄 준비를 늘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그물을 드리우고 나서 처음으로 망선에서 그물을 마음껏 당길 수 있게 적절히 닳을 묻어주는 낚배를 ‘선말잡이’라 하고, 닳이 고정된 위치까지 그물을 당겨 놓고 재차 그물을 당기기 위하여 다시 닳을 옮겨 묻는 배를 ‘훗말잡이’라고 한다.

그물을 당기는 망선과 그 때마다 닳을 옮겨가며 닳을 묻어 주는 낚배는 서로 닳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낚배에서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닳을 적당한 위치에 옮겨가며 고정시켜 줌으로써 망선에서는 마개를 이용하여 그물을 신속하게 당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멸치 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우산처럼 그물을 쳐 놓고, 다시 그것을 일정한 목적지까지 끌어당기는 동안에는 늘 멸치 떼들의 양과 간만의 차, 그리고 그물을 당기기에 가장 안성마춤인 모래밭 형성 상태까지 고려해가며 당선에서 모든 상

황을 판단, 지시하는 대로 망선과 닷배에서는 일정한 목적지까지 그물을 당겨 와야 하는 것이다. 또 兩陣이 너무 좁혀짐으로써 멸치 떼들이 기를 쓰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시켜가며 당겨 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防陣網 설치 일정한 목적지까지 그물을 당겨오면, 곧 완전히 멸치 떼들을 에워쌓아 놓는 그물 정지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방진망이다. 그 위치는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또 썰물이 극에 달했을 때 수심이 얕아 작업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방진망 설치도

이렇게 하여 방진망 설치가 끝나면 썰물이 거의 극에 달해서야 포위해 둔 멸치 떼들을 잡기 시작한다. 그 때를 기다려 계원들은 배 위에서 잠을 자거나 서로 소담으로 시간을 보낸다. 대개 방진망에 가둬둔 멸치 떼들을 잡는 작업은 새벽녘에 행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장막후립 장막후립이란 방진망 안에 가둬 둔 멸치 떼들을 다른 그물로 몰아 잡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선으로 이용되었던 자그마한 풍선 두 척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높이 5m, 12발 길이인 한 떼의 그물로 수심이 얇은 ‘개코’에 드리워 놓고 천천히 ‘한불턱’으로 오면서 멸치 떼를 다시 좁게 포위한다. 이 씌 되면 방진망 주위에서 부표의 기능을 하고 있던 두 척의 닻배인 떼배가 상 자리를 떼어 두고 그 자리에 멸치를 떠 담고 물으로 운반하기 위한 커다란 바구니인 ‘고리’([그림 2] 참조)를 한 척당 8개씩 싣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포위된 멸치 떼들을 족바지([그림 5] 참조)로 뜨면서 고리에 담아 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를 물으로 운반한다.

어떤 배들이건 방진망 안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방진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가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방진망의 그물을 잠시 눌러 줘야 한다. 두 개의 커다란 막대로 양쪽을 눌러 주는데, 이 막대를 ‘선짓사울대’라 한다. 이 사울대는 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배들이나 포구를 빠져나올 때 배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받쳐 줄 때 쓰이기도 한다.

분업 지금까지의 어로 작업이 남성들의 일이라면, 물으로 운반된 멸치들을 건조시키거나 파는 일은 주로 여성들의 일이 된다. 상황에 따라 이를 그 자리에서 팔아 버리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삶아서 보관해 두기도 한다.

2) 자리잡이

자리(일명, ‘자리돔’이라고도 하는 데, 이하 ‘자리’로 통일함)는 우리나라 연안어업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에서 음력 3~9월 사이에 잡히는 어종의 하나이다. 횡감이나 짓갈로 그 맛이 뛰어나 오랫동안 제주 사람들에게는 일상음식의 하나로서 식생활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자리는 옛부터 떼배를 이용, 독특한 어법인 그물로 밖에 잡을 수 없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어로 방법이 전승될 수밖에 없었다.

일찌기 제주에 유배왔던 김정(金淨 1486~1521)은, 그의《濟州風土錄》¹⁰⁾에서 ‘…물고기는 그물로 혹은 낚시로 낚는데, 바다에 작은 고기류가 수종이 있으

10) 濟州道教育委員會(1976): 「耽羅文獻集」 pp.15~16.

니…’ (或網得或釣得 海有小魚數種)운운 했는데, 이는 바로 자리고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여겨지고, 또 이와 같은 고기를 잡을 때 썼다는 그물은 바로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자리그물’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에 자리잡이 어법이 얼마나 성행되어 왔는지는 1937 년대의 기록인《제주도세요람》에 잘 나타난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자리 어망이 무려 어선과 함께 650 망에 달했었다는 통계가 이를 대변해 준다.¹¹⁾

1. 자리밭과 그 가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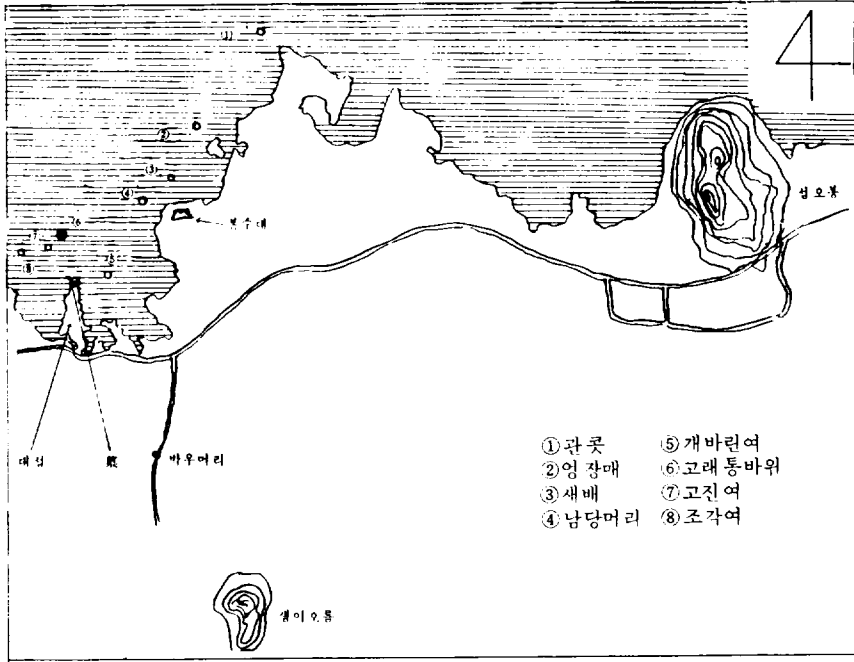
㉠ 자리밭

자리 떼들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서식처가 있다. 그러나 그 서식처를 찾아가지 않고서는 자리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서식처나 또 그 어로장을 두고 제주 사람들은 ‘자리밭’이라고 한다.

대개 이 자리 떼들은 물속 커다란 암초나 바위들이 있는 곳 (이를 ‘여’라고 함)에서 놀기 좋아한다. 때문에 한 마을 해역 안에서도 자리 떼들이 서식하는 일정한 지점이 있기 마련이다. 또 자리 떼들은 한 위치에서만 가만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조류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간만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자리는 하루 중에서도 만조에서 간조로 옮겨갈 때 (이를 ‘반물췌기’라고 함)나 또는 만조에서 썰물로 변하기 바로 직전 (이를 ‘물췌기’라고 함)에는 대개 어느 자리밭에서건 잘 잡히고, 또 15일의 간만 중에는 조수가 가장 낮은 때인 조금을 전후하여 가장 잘 잡히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간만의 상황에 따라 배도 같이 옮겨다녀야 한다. 그래서 주로 썰물 때만 자리가 잡히는 곳을 ‘췌물팻’, 밀물 때만 잡히는 곳을 ‘밀물팻’, 또 밀물 때이건 썰물 때이건 꾸준히 잡히는 곳을 ‘양물팻’이라고 한다.

조천리(朝天面 朝天里)의 경우, 소문난 자리밭은 8군데나 있다. 이들은 거의 물에서부터 떨어져 봐야 약 300여 m쯤 되는 가까운 곳들로 그 위치를 지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泉靖一(1966): 「濟州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그림 9]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여기에서 ‘썬물곶’에 해당되는 자리밭은 지도상 ③⑤⑧이고, ‘밀물곶’은 ②⑥⑦, ‘양물곶’은 ④이다. 그런데, ①의 ‘관곶’이라고 불리우는 자리밭은 자리는 무척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조류가 상당히 급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서 모두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라고 한다. 혹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아 오려고 할 때는 조류가 교차되는 시간, 대개 1시간 안에 잠시 잡고는 그 곳을 빠져 나와야 안전하다고 한다.

㉠ 가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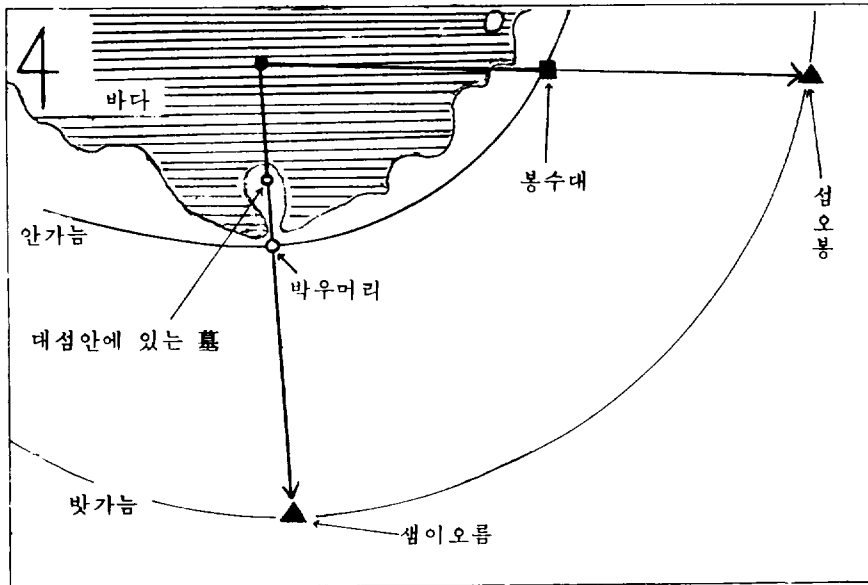
바다에서 어떤 고기를 잡기 위해서건 그 고기 떼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가서 그물이나 낚시를 드리워야 하는 게 일반이지만, 특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느 때보다 그 위치, 곧 자리밭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잘 찾아서 그 물을 드리워야 한다.

망망대해에서 일정한 위치의 자리밭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물에 있

는 지형지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가늠한다’고 한다. 대개 이 가늠은 총을 쏠 때 눈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늠자구멍과 멀리에 있는 가늠쇠 두 지점을 서로 눈금으로 맞춰서 목표물을 겨냥하듯이 그물을 드리울 위치를 가늠할 때에도 마을 가까이에 있는 지형지물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산의 일정한 지점을 눈짐작으로 서로 맞춰가며 그 위치를 두 세 갈래로 가늠하는 게 일반이다.

이때, 자리밭 중심에서 볼 때 가까이에 있는 지형지물을 ‘안가늠’, 대개 마을 밖에 위치해서 멀리에 위치한 지형지물을 ‘밧가늠’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가늠의 지형지물은 거리·나무·집·‘코지’(岬) 등 눈에 선한 어느 것이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밧가늠은 높은 산의 꼭대기나 그 능선의 어느 한 지점을 택하여 서로 그 두 지점을 가늠선상으로 맞춰가며 그 위치를 정확히 잡은 후, 그물을 드리워야 한다. 또 안개 등으로 인하여 밧가늠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하는 수 없이 안가늠만으로 그 위치를 잡기도 한다.

그래서 그 가늠 대상의 지점은 자리밭마다 다르기 마련인데, 朝天里 연안에 위치한 자리밭들 중, ‘고래통바위’라 불리는 자리밭의 안가늠과 밧가늠을



[그림 10] 안가늠과 밧가늠의 실제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바로 그 지점은 [그림 9]의 지도에선 까맣게 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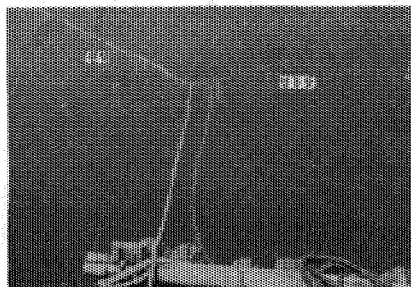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것은 朝天里 연안에 위치한 한 자리밭만을 예로 들어 알아 본 것이지만, 어느 마을 연안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자리밭을 가늠한다.

2. 방법과 漁具 ([그림 11] 참조)

자리잡이 '방법 1'에 대하여 그 잡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곁들여 漁具도 살펴 보기로 한다.

㉠ 닻 드리워 배 고정시키기

자리를 그물로 떠 잡기 위해서 일정한 자리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닻을 드리워 놓고 배를 고정시키는 일이다. 닻은 크게 '원닻'과 '염통닻' (이를 '벼룻닻'이라고도 함)으로 나뉘는데, 원닻은 그 길이가 약 100발쯤 되는 줄로 닻을 묶어 배의 이물과 고물 양쪽 '고지'에다 그 줄을 묶어두는 것이고, 염통닻은 조류의 반대 방향에다 닻을 드리워 놓고 배에서부터 약



[사진 11] 원닻과 염통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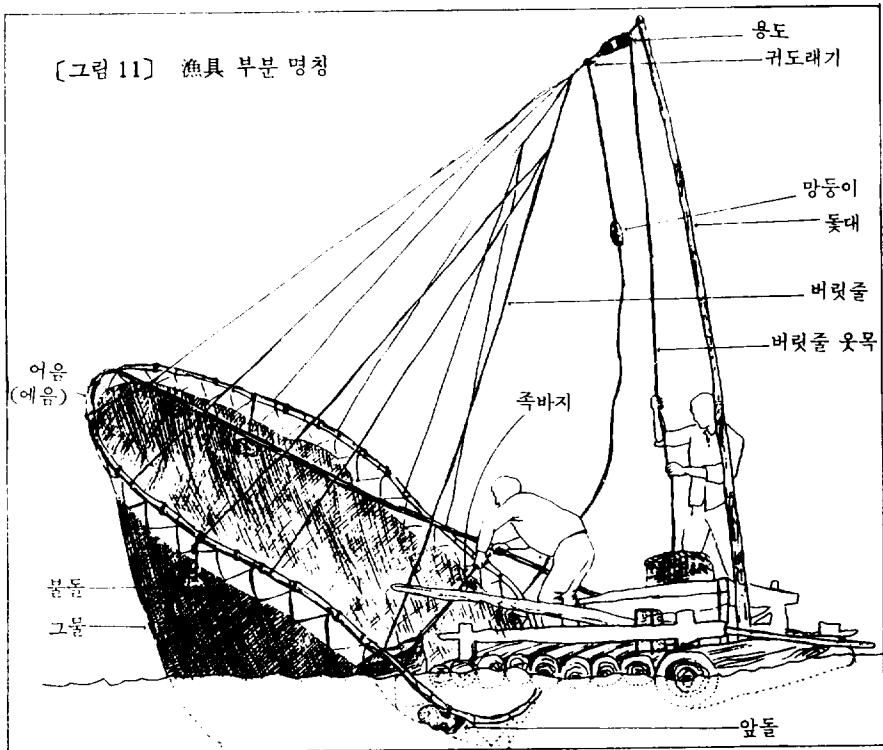
2~3m쯤 떨어진 원닻의 줄에다 약 30발쯤 되는 줄로 닻을 묶어 연결해 놓는 닻이다 ([사진 11] 참조). 그러니 세 방향으로 닻을 드리워 놓고 배를 고정시켜 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닻의 줄을 100여 발씩이나 길게 하는 이유는 닻이 조류의 힘에도 쉬 움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돛대 세우기

자리를 잡을 때의 돛대는 돛목을 탈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도르베 (용도)를 매달아 줄을 끼워 바다 속으로 그물을 드리우거나, 또는 수면 위로 끌어 올릴 때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삼나무로 해서 만든 약 6m 높이의

돛대에는 두 개의 도르레가 매달려 있다. 그 하나는 돛대 꼭대기에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도르레는 갈퀴가 달린 것으로 둥그런 그물 어음을 연결한 줄(버릿줄)의 코(‘귀도래기’라 함)를 찍어 고정된 도르레에다 연결된 줄(버릿줄)을 당겼을 경우, 그 힘에 의하여 그물 전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유동적인 도르레이다. 이 작은 도르레는 그물을 물속으로 드리웠을 때 항상 그물을 드리워 놓은 방향의 상자리에 고리처럼 묶어 둔 끈에다 걸쳐 놓아 둔다.

옛날에는 이 돛대에 소용되는 모든 줄들이 綿으로 끈 줄을 사용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나이론줄을 사용한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돛대 꼭대기에 따로 줄을 매어서 떼배의 적당한 곳에다 연결해 놓고는 돛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이를 ‘총줄’이라고 한다.



㉔ 그물 꾸미기

자리 그물은 자리밭에서 그림처럼 둥그런 테두리(어음)에다 그물을 끼워 꾸미게 된다. 그 테두리를 ‘어음’ 또는 ‘에음’이라고 한다.

어음 오늘날 어음의 재료는 적경 50 m 정도의 소리나무나 쪼갠 왕대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만들지만, 제주도는 왕대나무가 희귀한 곳이고 보면 어음의 원초적인 재료는 어느 나무보다 바닷물에 강한 소리나무가 아니었나 한다. 이 두 나무를 재료로 하여 어음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약 10여 년 이상은 쓸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그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소리나무는 한라산에 가서 베어다가 쓰지만, 왕대나무는 주로 육지부에서 사다가 쓴다.

어음은 5 발쭝 되는 3개의 길다란 나무를 연결, 총 14 발 길이의 둥그런 테두리를 만든다. 그 어음을 셋으로 나뉘었을 때, 항시 떼배 가까이에 위치한 부분을 ‘앞대’, 그 반대쪽의 나머지 부분을 ‘왕잇대’라고 한다. 앞대는 반드시 소리나무로, 왕잇대는 대나무로도 만들 수 있다. 앞대를 소리나무로만 고집하는 이유는 그물이 물 위로 올려졌을 때 항시 떼배에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나무처럼 너무 잘 휘어져서는 부러질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음에는 새카맣게 페인트 같은 것으로 검게 칠해져 있는데, 이는 자리가 하얀 색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서 놀라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물 그물은 자리가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촘촘히 짜야 한다. 옛날에는 緋으로 실을 만들었는데, 자리그물 한 때를 찢려면 한 겨울 내내 걸렸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나이론실로 짠 그물을 사다가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그물이건 1년에 한번쯤은 풋감즙으로 물들여 줘야 한다. 그래야 그물이 축 쳐져서 물속으로 드리웠을 때 바위 같은 데 걸려 쉽게 상하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그물 끝 부분을 매듭지어 주는 줄을 ‘수노리줄’이라 하고, 수노리줄에다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매달아 어음에다 끼워 고정되게 된 줄을 ‘셋줄’이라 한다.

‘불돌’ 매달기 낚시나 그물이 쉽게 가라 앉도록 매다는 남이나 돌맹이를 ‘뽕돌’이라 하는데, 자리그물의 경우는 돌맹이를 달아 매는 게 일반적이다. 어음 중 왕잇대 양쪽으로 1.2 kg 정도의 돌맹이를, 앞대 가장자리에다 15 kg 정

도의 돌맹이를 달아매는데, 전자를 ‘불돌’이라 하고, 후자를 메배의 앞쪽에 달아매는 돌이라고 하여 ‘앞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불돌 대신 두 개의 왕잇대에다 아예 쇠붙이를 끈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켜 놓는 경우도 있다.

어음에 **줄매기** 자리그물 어음에는 줄이 매달려져야 그물을 물속으로 드리우거나 또는 당기기에 좋다. 그 종류로는 ‘앞줄’과 ‘버릿줄’이 있다. 앞줄은 앞돌 바로 가까이에 맨 줄로 닳줄처럼 두툼한 줄이고, 버릿줄은 ‘버릿줄웃목’에 연결된 9개의 가느다란 줄로 일정한 간격으로 어음 둘레에다 묶는다. 버릿줄이 ‘귀도래기-버릿줄웃목-용도’로 연결되어 그물은 물속으로 드리우거나 또는 물 위로 떠 올리기 위한 줄이라면, 앞줄은 항상 메배 상자리에다 묶어 두면서 무거운 ‘앞돌’을 떠올리는 데 필요한 줄이라고 할 수 있다.

㉔ 그물 드리우고 건지기

그물을 물속으로 드리울 때에는 도르레(용도)를 이용하여 어음이 15 발내외의 수면까지 내려갈 만큼 ‘버릿줄’을 일단 늘어뜨려 놓고는 코가 달린 도르레에 걸려 있는 18 발 남짓한 버릿줄웃목을 떼어내어 한 사람은 버릿줄 웃목을 잡고, 또 한 사람은 앞줄을 잡아 천천히 물속으로 늘어뜨려 쥐가며 그물을 해저까지 닿도록 한다. 이때 버릿줄 웃목 중간쯤 해서 오동나무나 삼나무로 만든 부표(이를 ‘망둥이’라 함)를 매달아 두는데, 이는 버릿줄이나 그 웃목이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을 경우, 그 줄이 바위 같은 데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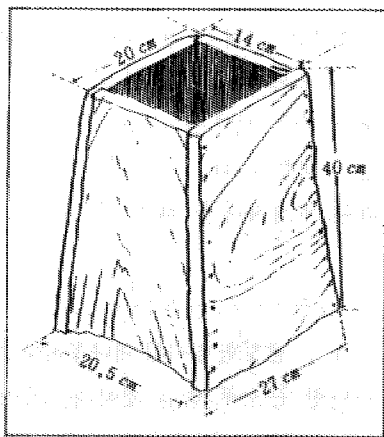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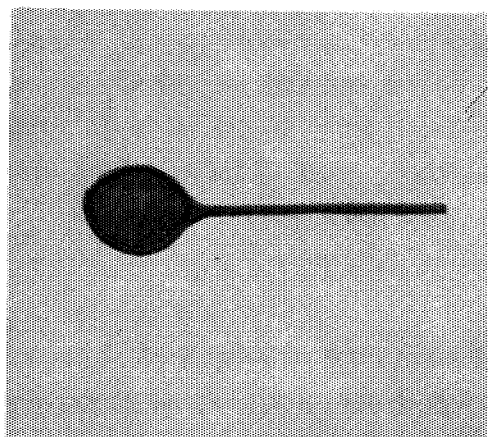
이와 같이 그물을 물속에 드리워 놓고는 물안경으로 자리 메들이 그물 위에 붙어와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한 후, 그물을 당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앞줄을, 또 한 사람은 버릿줄 웃목을 잡고 어음이 수면까지만 맞닿게 당겨 올려 놓은 후, 제 2 단계로 버릿줄 웃목을 코가 달린 도르레에다 끼운 후, 돛대에 부착된 버릿줄을 당겨 줌으로써 완전히 수면 위로 그물이 떠오르게 하고, 앞줄을 잡고 있던 사람은 그 줄을 상자리에다 놓아두고 족바지(〔사진 12〕 참조)를 들고 그물안의 자리를 떠낸다.

㊤ 자리 메 확인

그물을 물속 깊이 드리워 놓고 자리 메들이 그물 위에 물려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경, 또는 '물안경'이라고 하는 도구로 물속에다 태어 굽어보며 늘 확인해야 한다.

물안경은 [그림 12]와 같이 마름모꼴의 기둥 모양으로 하나의 통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는 유리를 박아서 물밑을 늘 들여다 보기 좋게 만들었다.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소나무의 송진을 따다가 그 틈을 메꾼 후, 다시 그 위에다가 양초를 녹여 발라줬다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페인트를 목직하게 칠하여 물이 스미지 않게 한다.

이와 같은 물안경보다 더 원초적인 자리 메 확인 방법은 '작박'이라고 하는 작은 함지박을 이용, 그것으로 햇빛을 가리고 물밑을 들여다 보며 자리 메를 확인하기도 했었다 한다.



[사진 12] 자리 족바지 [그림 12] 물안경, 濟大博 1527-42

㊤ 그외 비상도구들

자리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때에는 위에서 살펴 본 어구들 이외에도 늘 비상시에 쓰기 위하여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도구 몇 가지가 있다.

○ 바농대

길이 160 cm 내외의 것으로 대나무나 또는 간혹 구리로 만든 것으로 현장에서 자리그물이 찢어졌을 경우에 잇거나 깎는 데 쓰인다.

○ 줄

바닷물 속에 드리웠던 그물을 당기다가 강한 바람이나 실수로 인하여, 특히 어음 중 왕잇대가 부러졌을 경우에 임시 조치로 그 부위를 묶기 위한 것이다.

○ 부 표

메배를 일정한 지점에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닻을 양쪽으로 드리울 때, 어느 한쪽부터 닻을 드리워 두고 나서 다시 170 여 m나 떨어진 지점에다 다시 닻을 드리우게 된다. 그러나 안개가 짙게 끼게 되면 처음에 닻을 드리운 지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위치를 표시해 두기 위하여 박으로 만든 부표를 항시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 칼

갑자기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바람에 닻줄과 함께 배가 한쪽으로 쓸리면서 그 힘으로 메배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급히 칼로 한쪽의 닻줄만이라도 끊어줘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급한 사태는 흔한 게 아니고 가끔 있는 일인데, 김병문(남·68)씨의 경우에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30년 동안에 두번 경험했었다고 한다.

○ 받침대(〔그림 11〕 참조)

4 발 남짓한 길이의 대나무에다 그 윗부분에〔그림 12〕처럼 짙막한 나무를 대고 단단한 끈으로 묶은 것이다. 자리그물을 물 위로 올렸을 때, 바람이 메배가 있는 쪽으로 심히 불어와 어음이 꺾어질 우려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류에 쓸려 어음이 배 밑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받침대로 받쳐 밀어내어 어음이 제 위치에 오도록 조종하는 데 쓰이는 어구이다.

또 자리를 한곳에서 잡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그물을 물 위로만 올린 채 이동하게 된다. 이 때는 받침대를 상자리의 일정한 곳에 끼워서 비스듬히 고정시켜 놓고 그불이 축 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받쳐 줄 때 사용되기도 한다.

3. 방법 2 와 漁具

자리잡이 ‘방법 2’는 ‘방법 1’에 비하여 원초적인 것이어서 제주도에 ‘방법 1’의 어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느 어촌에서건 이 어법으로 자리를 잡았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서는 ‘방법 2’의 어법이 100여 년전에, 또는 50여 년 전에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도 고집스럽게 ‘방법 2’의 원시적 어법으로 자리를 잡는 때배를 꼭 한 척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이 濟州市 內都洞에 있는 한기생씨(남·78) 소유의 것인데 지금까지도 원시적인 어법을 고집하게 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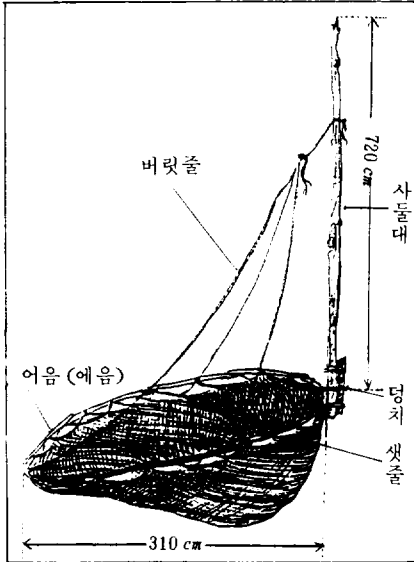
‘방법 1’의 어법은 무려 24 m 내외의 수심에까지 그물을 드리워 놓고 어로작업을 하지만, ‘방법 2’의 어법은 대개 그물을 5 m 내외까지만 드리우고도 어로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심에서 자리밭이 형성되는 연안이 이 마을에 몇 군데 있어 ‘방법 2’의 어법으로도 손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점과, 다 늙은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 자리를 잡아봐야 몇 해나 더 잡겠느냐는 욕심없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오늘날 돛단배를 이용한 ‘방법 1’의 어로법과 이보다 원초적인 ‘방법 2’, 그리고 최근에야 도입된 ‘방법 3’까지 모두 세 가지 자리잡이 어법이 공시태에서 전승되고 있다 하겠다.

시기 음력 6월 말에서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작업한다. 그러나 ‘방법 1’의 시기에 비하여 약 3개월쯤 늦게 시작되는 편인데, 이는 자리 때들이 ‘방법 2’의 어법이 가능한 수심 5 m 내외의 자리밭까지 올라왔다가 8월 말께 빠져나가 버린다는 말이었다.

어구 여타의 자리잡이용 어구들은 ‘방법 1’의 것들과 별다른 점이 없이 거의 같은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망은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겠다. 자리그물이 하나의 ‘족바지’(이를 ‘사들’이라고도 함)라고 가정할 경우, ‘방법 1’의 것은 손잡이 격인 ‘족바지대’(또는 ‘사들대’라고 함)와 그물을 에워두른 어음이 둘로 분리된 것이라면, ‘방법 2’의 것은 그것이 미처 둘로 분리되지 않아 다음의 그림과 같은 하나의 커다란, 제주도 어망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족바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방법 2’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구인 어망(이를 국자처럼 생긴 것이라고 해서 일명 ‘국자사들’이라고도 함)에 대하여 이모저모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13] 국자사들, 濟大博 1092-42

시켰다. 이를 ‘세역박음’이라고 하는데, 양군데로 뚫어서 고정시켜야 어로작업 중에도 흔들거리지 않아서 좋다.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어로기간이 지나서야 분해시켜 보관한다.

㉞ 사들대

국자사들의 손잡이다. 대개 삼나무로 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두개의 나무를 연결시켜 쓰기도 한다.

㉟ 버릿줄

어음과 사들대를 연결한 세 개의 줄이다. 여기에도 역시 자리매들이 놀라도 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검은 색으로 물들여 쥐야 한다.

㊱ 어 음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게 된 테두리인데, 여타의 나무들에 비하여 바닷물에 강한 소리나무를 이어가며 만들었고, 자리 매들이 놀라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검은 색으로 물들였다.

㊲ 덩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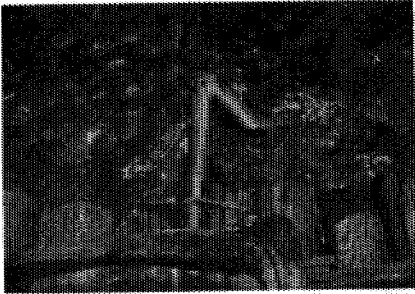
어음을 만들 때 나무의 줄기에서 두 갈래로 갈려나간 바로 그 지점을 ‘덩치’라고 부른다(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 13]을 참조할 것). 국자사들의 손잡이인 사들대와 바로 이 덩치에다가 두 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 이를 움직여 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고정

㉔ 셋 줄

그물과 어음을 연결시켜 주는 줄이다. 작업이 끝났을 때는 이것을 풀어서 그물을 떼어내 따로 보관해 둔다.

방법 '방법1'은 대개 두 사람이 서로 어우러가며 같이 어로활동을 해 나가고 또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지만 여기에서는 대개 한 사람이면 족하다.

'국자사들' 드리우기 일정한 자리밭으로 가서 닻을 드리워 배를 고정시켜 놓고서는 위 그림의 국자사들을 배의 앞부분인 이물 쪽으로 배와 거의 직각이 되게 드리운다. 바로 그 이물 중간쯤에는 사들대를 걸쳐 두는 나무로 만든 갈퀴 비슷한 게(이를 '버텅'이라고 함. [사진 13]참조) 장치되어 있는데, 사들대를



[사진 13] 버텅

그리로 끼워 놓고서는 한손으로 그대를 잡아 주어야 하는데 사들대가 조류에 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잡고 있어야 한다. 이리코 나서 나머지 한손으로는 물안경([그림 12]참조)을 잡고 그것으로 물속을 가꿈 들여다 보며 자리메들이 그물 위에서 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국자사들' 올리기 사들 안에 자리메들이 물려온것을 일단 확인하면 배의 이물에다 사들대를 받쳐대고 메메에서 약 60도 각도로 비스듬히 눕혀 잡아 당긴다. 그물이 거의 수면 위로 올라오면 자리를 떠 내기 위한 간편한 그릇(대개, 합지박을 쓰는 게 일반적)을 들고 그물 가까이로 가서 배 위로 떠 담아낸다.

④ 자리그물의 변천과정

이상, 제주도 자리잡이의 여러가지 방법들에서 볼 때, 제주도 전통적인 그물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리그물의 그 변천사를 간단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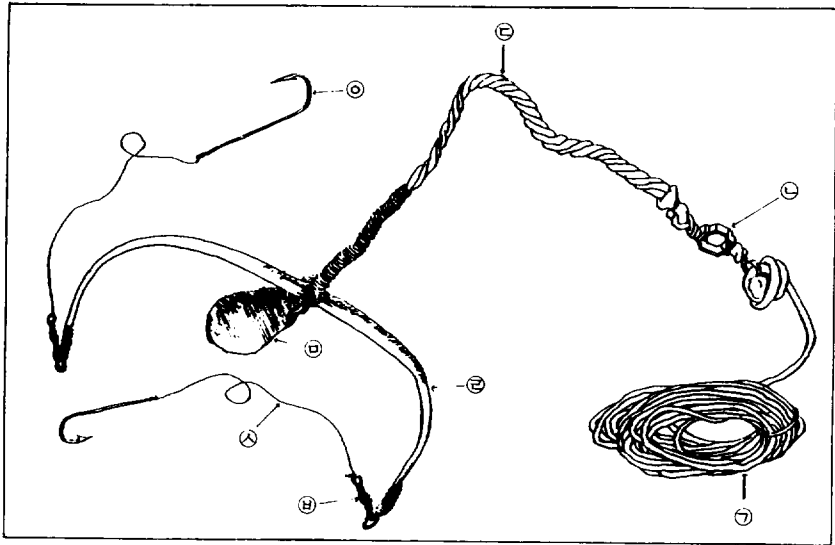
가장 원초적이며 간단한 형태인 '방법 2'의 [그림 13]은 바로 멀치잡이 방

법들 중에서도 갯담어로에 사용되어 왔던 ‘족바지’ 형태 그물의 확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그물을 두고 일명 ‘국자사들’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국자사들보다 진보된 형태인 ‘방법 1’의 그물은 바로 국자의 손잡이가 국자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처럼, 족바지 형태의 그물에서도 그 손잡이가 분리되어 나와 하나의 돛대가 되고, 바로 그 돛대에다 도르레(일명, ‘용도’라고도 함)를 부착하여 그물을 물속에 드리우거나 또는 건져내는 하나의 二元化된 것으로 변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위에서 살펴 본 ‘방법 1,2’의 어법이 간혹 보이면서도 또 오늘날에 와서는 배 2,3척이 협업하여 길다란 그물로 자리를 떠 잡는 방법들이¹²⁾ 새롭게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자리그물의 변천과정에서 이들과의 상관성은 차후의 과제로 돌린다).

3) 갈치잡이

제주도에서 갈치잡이는 음력 2월에서부터 4월까지, 또 7월보름계부터 10



[그림 14] 갈치술, 濟大博 1084-42

12)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4): “方言”, 「國文學報」 6輯. p.108의 그림 참조.

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다. 그래서 봄에 낚는 갈치를 ‘봄갈치’, 가을에 낚는 갈치를 ‘가을갈치’라고 한다. 봄갈치를 낚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약 수십마일이나 떨어진 관탈섬까지 가서 낚아야 하고, 가을갈치는 3~4마일 떨어진 연안에서 낚는다.

근래에는 관탈섬까지 갈 때에는 뚝단배나 동력선을 타고 가서 낚지만, 그 전에는 메배를 타고 가서 낚아 오기도 했었다 한다.

漁具 갈치를 낚는 어구를 통틀어 ‘갈치술’이라고 하는 데,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위와 같다.

㉠ 줄(갈치술)

‘갈치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화로 실을 빼어 가늘게 실을 뽑아낸 다음, 다시 그것을 세 겹으로 직경 0.4cm쯤 되게 줄을 꼰다. 줄을 질기고 또 뽀뽀하게 하여 갈치를 낚는 도중에 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이 이어져야만 완전한 갈치술이 된다. 우선 그 줄에다 풋감즙으로 물 들인 후, 다시 또 20여 일 정도 썩힌 돼지나 소의 피를 바르고 나서 건조시키고 다시 그 줄을 솥에 넣어 떡을 찌듯이 찌낸 후, 건조시켜야 완전한 갈치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번 만들어 놓은 줄은 20여 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일년에 한번 정도는 풋감즙이나 돼지나 소의 피를 칠해 쥐서 건조시켜야 하고, 또 이 줄은 자리잡이 어로에서는 ‘버릿줄’로 쓰이기도 한다.

㉡ 목도래기(新村), 큰훼롱(東福)

철사로 고리 비슷하게 만든 것인데, 갈치술과 고리를 연결시키는 고리이면서 또 갈치가 물었을 때 이것이 저절로 회전하게 됨으로써 갈치가 힘을 못쓰게 하기 위하여 달아맨 것이다.

㉢ 목

70여 cm쯤 되는 줄로 갈치술보다는 두툼하게 꼰 것으로 보통 삼베로 짜는 경우가 흔한데, ㉡의 마삭에 연결된다.

㉣ 마삭(安徳·新村), 섬(東福)

낚시를 물속으로 드리웠을 때 두개의 낚시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서로 엉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90여 cm의 나무나 철사로 휘어 만드는데, 그 재료가 나무인 경우, 다래줄이나 대나무의 뿌리, 또는 ‘멍줄’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야 잘 휘어지면서도 단단하여 좋다.

㊸ 뽕 돌

납으로 해서 만든 덩이인데, 이것을 달아매어야 물속 깊이 잘 들어간다.

㊹ 귀도래기(新村), 낚시휨롱(東福)

㉠, 목도래기(큰휨롱)의 기능과 같은 것으로 ㊸과 ㉡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 낚시아리

낚시를 매는 줄이다.

㉢ 낚시

다른 낚시에 비하여 목이 길다. 그 길이 약 80 cm나 되며 낚시에다 황늘래기나 ‘들락’을 미끼로 해서 한 마리의 갈치만 낚게 되면, 나중에는 갈치를 토막 내어 미끼로 대신하기도 한다.

4) 오징어잡이

시기 오징어는 주로 음력 4월 초순에서부터 5월까지 제주도 연안에서 잡히는데, 낮보다는 밤이 좋다. 그 이유는 오징어가 한번 미끼에 붙기만 하면海面 위로 올라올 때까지 미끼에서 떼어져 도망가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로 방법 제주도에서 오징어는 ‘낚는다’고 하지 않고 ‘붙인다’고 한다. 이 말은 원초적인 오징어잡이 漁法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여타의 고기들은 대개 낚시로 낚거나 그물로 뜨지만, 오징어는 10 발쭝 되는 줄에다 미끼를 묶거나 낚시에 꿰어 물속에 드리우고 있기만 하면, 오징어는 미끼에 와서 그것을 삼키는 게 아니고, 그 미끼에 달라붙기 마련이다. 이쯤 되면 벌써 손에는 묵직한 촉감이 전해진다. 줄을 슬며시 잡아 당겨서 거의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도 오징어는 그 미끼에 붙어 있는 게 일반인데, 바로 이때 ‘족바지’를 미끼에 붙어 따라온 오징어 밑으로 슬며시 대어서 떼 잡는다.

미끼 미끼는 오징어잡이 나가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 주로 해변에서 낚싯대로 해서 낚은 그물베도라지(보들락)나 황놀래기의 껍질만 살짝 벗겨내 버리면 바로 미끼가 된다. 보통 줄 하나에 하나의 미끼만을 달아내는 게 일반인데, 혹 실수로 고기를 잔등으로 묶거나 찌게 되면 오징어가 거기에 와 붙더라도 해면으로 올라오는 동안에 그 무게의 중심을 잃게 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끼를 꼬리로나 머리 부분으로 끈게 묶거나 꼬여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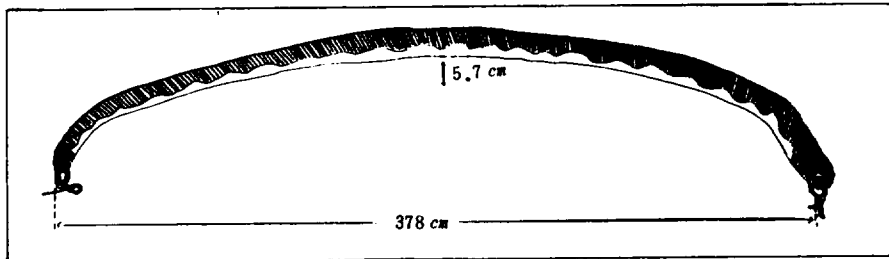
떼배를 타고서 오징어잡이를 갈 경우, 한 사람이 3~4 개의 줄을 갖고 두 사람이 타는 게 일반인데, 오징어잡이 줄을 차례로 드리워 떼배의 일정한 자리에 줄줄이 묶어 놓고는 차례로 번갈아가며 오징어가 붙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제주 사람들이 강원도 등지에 오징어잡이를 나가게 되면서 플라스틱으로 몸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달린 낚시바늘은 강한 철사로 만들어진 오징어 낚시가¹³⁾ 제주도에까지도 전래되게 되었다.

2. 해초채취작업

1) 방법 1

떼배에서 행해졌던 가장 대표적인 해초채취작업은 ‘줄아시’, 또는 ‘아시’(〔그림 15〕참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아시’(이하 아시라고 통일함) 라고 하는 넓이 5.7 cm, 길이 378 cm나 되는 거대한 칼을 이용, 바다 속의 해초를 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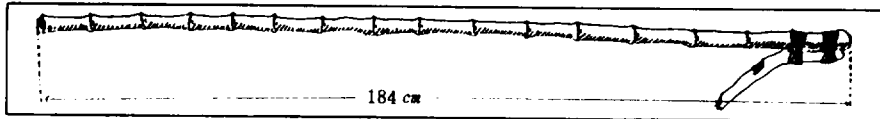
〔그림 15〕 줄아시 (또는 아시), 濟大博 1191-42

13) 김광언 (197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江原道편)」, 文化財管理局 p.369 참조.

어다가 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던 작업이다.

이 작업은 40여 년전부터 화학비료가 제주도에 상륙하여 자연비료를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작업을 실제로 행했었던 촌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작업 규모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朝天面 新村里 강하림(남·89)씨와 여러 촌로들의 말에 의한 작업 상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작업은 주로 음력 3,4월에 행해졌었다. 이 때가 되면 동네 여러 집이 한 組을 만들어 전 마을이 일시에 작업을 실시한다. 이 작업을 하는 데는 한 조당 떼배 세 척이 필요하다. 한 척이 아시로 해초를 베어내는 대로 두 척은 번갈아가며 해초를 [그림 16]의 ‘공쟁이’라고 하는 갈퀴 비슷한 도구로 건져내며 물으로 실어 나르게 된다. 해초를 베어내는 배 위에는 남자 세 사람이 승선



[그림 16] 공쟁이, 濟大博 1528-42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노를 저어 나가는 대로, 두 사람은 아시를 물 속에 드리우고 해초를 베어 나간다. 아시 양끝에다 보통 휘줄로 단단하게 꼰 줄을 묶어서 수심의 깊이보다 약 3~4 cm쯤 더 길게 배 밑으로 늘어뜨려 놓고, 배의 앞부분 양 옆에 서서 서로 동작에 맞춰 밧줄을 늦췄다 당겼다 하며 해초를 베어나간다. 이를 ‘아시 푸른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베어진 해초는 자연적으로 물 위에 뜨기 마련이다. 나머지 떼배 두 척에는 각각 두 사람이 승선하여 있다. 한 사람은 물 위에 뜬 해초가 몰린 쪽으로 노를 저어가는 대로, 한 사람은 공쟁이로 해초를 끌어 당겨 배에 가득 실어서 물으로 운반하는 사이에, 다른 떼배가 와서 똑 같은 작업을 해 나간다.

물로 운반된 해초는 주로 아낙네들이 건조하기에 좋은 편편한 곳까지 지게 짐으로 옮겨 건조시킨 후, 가리(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작업이 모두 끝나면 똑 같이 나눠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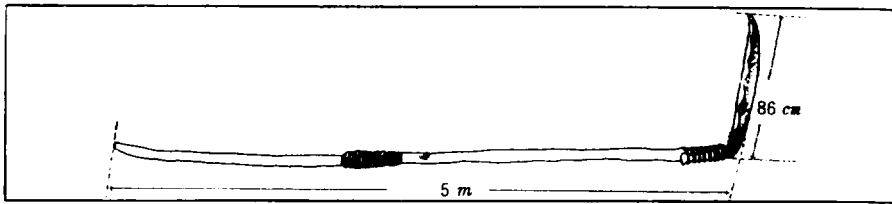
이 작업 역시 떼배를 이용한 모든 고기잡이처럼 남녀분업이 명확하다. 남자들이 해초를 캐어 물로 운반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당한다면, 여자들은 물로 베어

낸 해초를 건조시켜 가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전담하게 되는데, ‘아시’ 하나로 하루에 건조된 해초(듬북) 100 칭을 베어낼 수 있다고 한다.

2) 방법 2

‘듬북낫’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낫과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여 해초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듬북’은 제주도에서 통용되는 거름용 해초이고 보면, 곧듬북 낫은 이를 베어내는 낫인 셈이다 ([그림 17] 참조). 물론 낫의 날은 대장간에 가서 주문하여 만들게 되지만, 그 자루는 손수 산에 가서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그 나무만을 고집하는 까닭은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 침수성에 강하여 작업하기에도 편할 뿐더러 또 어느 나무보다도 물에 강하고 질기기 때문이다.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루를 길게 만들기 위하여 두 개의 가시나무를 머리털로 끈 줄(이를 ‘총줄’이라 함)로 묶어 연결시켰고 바로 그 한쪽 끝은 가죽실로 날을 단단히 잡아 묶었다.



[그림 17] 듬북낫, 濟大博 1222-42

이것으로 해초를 베어내기 위해서는 대개 떼배 한 척에 남자 두 사람이 타서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다. 듬북낫을 쥔 사람이 이것을 바다 속에다 드리운 채 해초를 베어나가면 자연적으로 그 해초는 물 위로 뜨기 마련이다. 또 한 사람은 베어낸 해초들이 물 위에 뜨는 대로 ‘공쟁이’로 물 위에 뜬 해초들을 끌어당기며 배위에 실어나간다.

거의 만산되었다고 판단되어 물으로 운반하면 대개 여자들은 그것을 평지로 운반, 건조시켜 가리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일정한 시기에는 밭에 거름으로 쓰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하루에도 몇 차례 반복되기 마련이다.

3) 방법 3

이는 여러 해초 채취방법들 중 가장 간단한 것의 하나로 단지 한 사람이 도구라곤 ‘공쟁이’ 하나만을 갖고 떼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해초를 캐어오는 방법이다.

해초가 많이 자라는 일정한 위치에 가게 되면 공쟁이를 물속에 드리워 것으로 해초 더미를 빙빙 감고는 잡아당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초는 그 힘에 못이겨 끊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여 한 배 가득 싣고 물으로 운반하게 되면 ‘방법 1,2’에서와 같이 보관했다가 거름으로 쓰게 된다.

지금까지 알아 본 해초 채취방법들 중, 가장 간단한 것이 ‘방법 3’이고, 복잡한 것이 ‘방법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서로 그 방법상에 있어서 관련이 깊다. 어떤 방법에서건 ‘공쟁이’를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방법 3’에서는, 공쟁이만을 그 도구로 사용하다가, ‘방법 2’에 와서는 듬북낫이, 그리고 ‘방법 1’에 와서는 듬북낫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인 ‘아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IV. 마 무 리

제주도의 떼배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들어 왔었다는 점과 그 떼배의 구조가 주변 민족들의 것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미뤄 볼 때, 제주도의 떼배는 어디서 전래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세계의 보편적인 자생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은 이 떼배를 이용하여 멸치잡이·자리잡이·갈치잡이·오징어잡이 등의 연안어로와 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한 해초, 특히 ‘듬북’ 채취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떼배 만들기와 그 구조, 그리고 떼배를 이용한 제반 어로행위들에 대한 어로 방법과 조직, 그에 따른 어구 등에 대하여, 그리고 또 힘이 미치는 범위에 한해서 이들의 변천사까지도 살펴 봤다.

그러나 본고는 제주도의 떼배와, 이를 이용한 어로행위 전반에 대한 하나의 기초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 어로 민속 전반에 있어서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